

백제문화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

최 석 원 | 2010세계대백제전 조직위원회 위원장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수준이 행사 수준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가령, 축제를 만드는 행위자(Agent)의 안목과 기술, 예술적 문화적 감각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축제의 수준은 아주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이다. 축제 담당자 스스로 지역적 폐쇄성 혹은 다른 말로 로컬리즘을 뛰어넘고자 하는 경우라면 얼마든지 전국 축제화로, 더 나아가 국제성을 갖는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한 때는 ‘가장 우리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가설이 팽배하면서 ‘우리적인 것’ 이기만 하면 그만이란 식의 인식이 유행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요즘은 그에 못지않게 세계적 수준과 세계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세계적 축제로 자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에 공무원과 민간인 구분을 떠나 문화에 대한 관심과 마인드를 갖춘 직원을 배치하는 일은 중요한 것이다. 이는 축제를 벌이기 위한 기본 인프라, 말하자면 교통 숙박 음식 안내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등 관람객 편의성을 높이는 일보다도 어쩌면 우선되는 것일 수 있다.

전국적으로 무수한 축제들이 연중 실 틈 없이 펼쳐지는 것을 눈여겨 들여다보면 그들 축제의 발전성과 잠재성을 점쳐볼 수가 있다. 비슷한 컨셉과 구성, 비슷한 프로그램들,

비슷한 하드웨어로는 축제의 차별화는커녕 국제 수준의 축제로 발전시켜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전국 축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준 낮은 외국 민속공연에 관람객들이 많은 시간을 던지거나, 관심을 가져줄 리는 만무하고, 싸구려 전시물에 눈 속아줄 관람객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족한 축제 내용을 뛰어난 홍보나 집중적이고도 다량의 홍보를 통해 커버하면서 이른바 집객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건 그 때 한번 뿐이다. 그래가지고는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관람객을 포함한 전체 축제 참여자들의 안목과 수준도 그 축제를 좌우하는 한 측면이다. 결국은 축제의 참여자들(Participants)이 그 축제를 키우는 것일 텐데, 참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 얼마나 흥겹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느냐가 관건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 곧 축제 행위자들은 축제 참여자들이 그저 진탕 흥겹게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자리만 깔아주면 된다는 식이다. 나머지는 참여자들의 몫이다.

어찌 보면 축제 자체가 일상으로부터의 이탈(Deviation)이고, 한바탕 흥겨움(fiesta)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축제 참여자들이 모두가 흰 티셔츠를 입고 참가해 1시간 동안 마을 주민과의 싸움이 나고, 토마토 수레에 쌓인 토마토를 던지면서 일종의 '붉은 전쟁'을 펼치는 스페인 부놀 토마토축제가 그 대표적 사례다. 우리에게도 있다. 충남 보령이 자랑하는 머드축제도 비슷한 경우다.

물론 축제 속에 풍부한 콘텐츠가 담겨 있다면이야 대형 축제로 성장할 잠재력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백제문화제는 그같은 여러 축제의 요소를 두루 갖춘 축제인 까닭에 세계적인 대형 축제로 성장시켜가야 하고, 그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백제문화제가 오는 9월에는 2010세계대백제전이라는 이름으로 볼륨이 대거 확대돼 치러진다. 대백제전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콘텐츠로 한다는 점이다. 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고마나루와 낙화암 수상공연 등 금강을 따라 흐르는 서사적 수상축제로 표현해내는 것인데, 기존의 프로그램의 조합이나 나열이 아닌 새로운 창조적 축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 달 동안 지속될 프로그램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물(水, 濟)과 곰(熊, 고마), 그리

고 고대국가의 특징인 제불전(祭佛典)과 정복전쟁을 상징으로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이 이 축제의 모티브이고, 이는 일회성 축제가 아닌, 그간 55년간이나 향토축제로서 뿌리를 튼튼히 해온 근거다.

다음은, 대백제전이 그 모티브가 이러한 역사문화에 있고 그것을 소재로 하는 까닭에 다분히 교육적 요소가 강한 축제여서 새로운 세대, 즉 어린 학생들에게는 언제나 교육적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큰 강점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관람객은 계속 생성되어간다는 의미에서다.

주행사장 가운데 한 곳인 백제문화단지 개장과 함께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공연, 재현, 이벤트, 전시, 학술,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으로 구현해냄으로써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즐기고, 가슴으로 느끼는 축제가 가능하기 때문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충남 전체 시군과 범(汎) 백제권, 더 나아가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라는 점도 대백제전의 특징이다. 백제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16개 시군이 참여하며, 한성백제, 웅진백제, 사비백제를 하나로 잇는 범백제권을 축제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가제해(百家濟海)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까지 세력을 확대했던 문화강국 백제의 찬란한 문화창조력을 모태로 하는 세계대백제전에 거는 기대는 그만큼 크다. 지구촌이 함께 하는, 배움과 재미와 감동이 있는, 창작축제로 키워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대국가 가운데 가장 뛰어난 문화창조력과 예술혼을 자랑했던 나라가 백제였다면, 그를 모티브로 하는 축제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빼어난 축제로 키울 명분은 충분하다. 백제 문화가 우리 문화의 원류이고 대표성을 갖는 문화이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고대문화의 모든 세련되고 아름다운 것은 모두 백제의 것이라고 해서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시아 대표 명품 문화축제가 그냥 수식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을 할 만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그렇다면, 축제 행위자 곧 준비하는 쪽의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축제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사실을 알게 하고, 참여토록 할 필요가 있다.